***Session 5*** ***Jesus is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Jn. 14:4-6)* 제5강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요 14:4-6)**

1. Review: Jesus’ command not to allow trouble to dominate our heart  
   복습: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명령
   1. Jesus commanded the disciples not to let trouble dominate their hearts (Jn. 14:1). John 14:1 is not   
      a salvation appeal to become born again. Many in Israel, including the Pharisees, believed in the   
      *God of Moses* without having seen His form (Jn. 5:37). They had *faith in an invisible God.*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의 마음이 근심에 눌리지 않게 하라고 명하셨다 (요 14:1). 요한복음14장 1절은 예수 믿고 거듭나라는 말이 아니다. 바리새인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했으나 **모세의 하나님**을 믿었다(요 5:37).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었다**.

1“Let not your heart be troubled; you believe in God [a fact], believe also in Me [a command]…   
27My peace I give to you… Let not your heart be troubled…” (Jn. 14:1, 27)   
1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사실] 또 나를 믿으라 [명령]…27…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 너희는 마음에 근심 하지도 말고 … (요14:1, 27)

* 1. Jesus declared 4 core truths in John 14:2-3 concerning which they were to believe in Him.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네 가지 핵심 진리를 선포하셨다.

2In My Father’s house are many mansions…I go to prepare a place for you…3I will come again and receive you to Myself; that where I am, there you may be also. (Jn. 14:2-3)   
2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3…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14:2-3)

* + 1. ***Truth #1—My Father’s house***: The Father’s house is the New Jerusalem. The redeemed will live together with Him forever in His immediate presence as part of His family.   
       **진리 #1**----**내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집은 새 예루살렘이다. 구원 받은 자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의 일원으로서 영원히 아버지의 가까운 임재 가운데 그분과 함께 살 것이다.
    2. ***Truth #2—I am going to prepare a place for you***: Jesus went to the cross to prepare our place in the Father’s house. He secured the way for us to enjoy the Father’s house *spiritually* in this age by the indwelling Spirit (14:17, 23) and *physically* at His second coming.  
       **진리 #2—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예수님은 아버지의 집에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시대에는내주하시는 성령님(14:17, 23)에 의해 **영적으로** 아버지의 집을 누리고, 예수님 재림 때 **육신으로도** 아버지의 집을 누릴 수 있는 길을 확보해 놓으셨다.
    3. ***Truth #3—I will come for you***: He will come back to receive His people to Himself. He will come to His people *physically* at the end of this age to reign over all the nations from Jerusalem, while He comes to them *spiritually* in this age by the indwelling Spirit (14:23).   
       **진리 #3 ---- 내가 너희를 위해 올 것이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영접하기 위해 다시 오실 것이다. 그분은 이 세대의 끝에 그의 백성에게 **육신으로** 오셔서 예루살렘에서 모든 열방을 통치하실 것이며, 또한 이 시대에도 내주하시는 영으로 그들에게 **영적으로** 오실 것이다(14:23).
    4. ***Truth #4—That where I am, there you may be***: Here, Jesus gave one of the reasons for going to the cross. He desires His people to be with Him even more than they desire to be with Him.  
       **진리 #4 ---- 내가 있는 곳에 너도 있게 하리라**: 여기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이유 중 하나를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이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갈망하신다.

1. thomas’ question about the way to the Father (Jn. 14:4-6)   
   아버지께로 가는 길에 대한 도마의 질문 (요 14:4-6)
   1. Jesus pointed out that they knew where He was going because He had just told them—My Father’s house. Earlier, He told them He would return to the Father (Jn. 7:33). He went to the Father (Jn. 13:1; 14:6; 14:28; 16:16-17, 28). Jesus addressed Peter’s question concerning where He was going (13:36). There are three questions in John 14—Thomas (14:5), Philip (14:8), and Judas (14:22).  
      예수님은 그분이 어디로 가시는지 제자들은 안다고 하셨는데 이는 그분이 방금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전에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었다(요 7:33).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가셨다(요 13:1; 14:6; 14:28; 16:16-17, 28). 예수님은 어디로 가시는가에 대한 베드로의 질문에 대답하셨다(13:36). 요한복음 14장에는 도마(14:5), 빌립(14:8), 유다(14:22)의 세 질문이 있다.

4“And where I go you know, and the way you know.” 5Thomas said to Him, “Lord, we do not know where You are going, and how can we know the way?” (Jn. 14:4-5)  
4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5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요14:4-5)

* 1. Thomas spoke for the others in saying, “We do not know where You are going” (14:5). Thomas’ question expressed the confusion that he and the others had about Jesus’ destination. They were not sure what going to “the Father’s house” implied—a new temple (Mt. 24:2). Without knowing where Jesus was going, he did not know the way to get there.   
     도마는 다른 이들을 위해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합니다(14:5). 도마의 질문은 자신과 다른 이들이 예수님의 목적지에 대해 가진 혼란을 표현한 것이었다. 제자들은 “아버지의 집”에 간다는 것이 새 성전으로 가시는 것인지(마 24:2),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신하지 못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면, 거기로 가는 길도 모르기 때문이다.

21“I am going away…where I go you cannot come…” 27He spoke to them of the Father. (Jn. 8:21, 27)   
21… 내가 가리니 …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27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요 8:21, 27)

* 1. So, Thomas asked for clarity on the destination and how He and they would get there. Thomas was saying, “We don’t know what happens to us after You leave for a while. We don’t have a map with directions to get to the Father.” How can they know the way if they did not know the destination?   
     그래서 도마는 목적지가 어딘지와 예수님과 그들이 어떻게 거기에 갈 수 있는지 분명히 여쭤보았다. 도마는 “주님이 잠시 후 떠나시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아버지께 가는 길을 알려주는 지도가 없습니다.” 목적지를 알지 못하면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겠는가?
  2. Jesus clarified “where” He was going—to the Father’s presence. The only “way” that they could go there was through Him. This is Jesus’ sixth “I am” statement (6:48; 8:12; 10:9, 11; 11:25; 15:1).  
     예수님은 자신이 가시는 “곳” 즉 아버지의 임재로 가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그들이 거기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은 예수님을 통해 가는 것이었다. 이것은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 말씀하신 여섯 번째 말씀이다(6:48; 8:12; 10:9, 11; 11:25; 15:1).

6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Jn. 14:6)  
6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14:6)

* 1. Jesus used the occasion of His going to the Father *physically* to tell them how they can go   
     to the Father *spiritually* in this age (14:7-24). Relating to the Father empowers us to overcome a troubled heart—this is another reason to trust Jesus and not let trouble dominate our heart.   
     예수님은 **육신으로** 아버지께 가실 기회를 사용하여 그들이 이 세대에 **영적으로** 아버지께(14:7-24) 갈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셨다. 아버지와 관계를 맺는 것은 우리가 마음의 근심을 극복할 힘을 준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으며 근심이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야 할 또 다른 이유다.
  2. I encourage you to pray, “Jesus, thank You that You are the way, truth, and life. Show me more!”  
     나는 이 기도 하는 것을 격려한다. “예수님,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니 감사합니다. 더 보여주세요!”

1. Jesus is the way (Jn. 14:6a)  
   예수님은 길이시다 (요 14:6A)
   1. Jesus’ death made away for us to go to the Father spiritually (relationally) in this life and physically in the resurrection when we live in the Father’s house. Jesus’ death made away for us to relate to the Father by paying the debt of our sin on the cross to give us access to relationship with the Father in this age. By His death, Jesus removed all obstacles keeping us from being accepted by the Father.   
      예수님의 죽음은 이 땅에서 영적으로(관계적으로)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만드셨고, 우리가 아버지 집에 살 때에 육신으로 부활하는 길을 만드셨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가 이 시대에 아버지와 관계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 죄의 값을 치루심으로써 아버지와 관계할 수 있는 길을 만드셨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가 아버지께 받아들여지는데 방해되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셨다.

6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Jn. 14:6)   
6…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 14:6)

* 1. Jesus went to the cross to prepare or fully secure our place in the Father’s house forever (14:2). Many think Christ died as a martyr. They do not understand the purpose of His death as set forth in Romans 3:25-26 and 2 Corinthians 5:21. Jesus became sin and paid the debt of our sin before God.  
     예수님은 아버지의 집에 영원한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고 완전히 확보하기 위해 십자가로 가셨다 (14:2).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순교하셨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로마서 3장25-26절과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설명된 예수님의 죽음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했다. 예수님은 죄가 되셨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의 값을 치루셨다.

2“…I go to prepare a place for you…3I will come again and receive you to Myself…” (Jn. 14:2-3)   
2…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3…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 (요14:2-3)

* 1. We don’t need to know “how” to get to heaven when we die. Jesus comes for us (14:3)—for some He comes personally; to others He sends angels to escort the redeemed to God in His name. At His second coming, the entire body of Christ will be raptured.   
     우리는 죽어서 천국에 “어떻게” 가는지 알 필요가 없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오신다(14:3)—어떤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오신다. 어떤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천사들을 보내사 그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속된 이들을 호위하게 하신다. 그분의 재림 때는 그리스도의 몸 전체가 휴거될 것이다.
  2. We are to trust Him that He promised to take us to the Father’s house. If you entered a large foreign city and asked for directions, it would be better if someone told you to follow him instead of explaining how to get to your destination. Instead of giving us directions, He will take us to the Father’s house. Don’t worry about what will happen at death. Jesus will come back for you.  
     우리는 우리를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을 신뢰해야 한다. 외국의 큰 도시에 들어가 길을 물을 때, 누군가 목적지까지 가는 길을 설명해주는 것보다 따라오라고 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방향을 알려 주시는 대신, 아버지 집으로 우리를 데려가실 것이다. 죽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걱정하지 말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실 것이다.

1. Jesus is the truth (Jn. 14:6b)  
   예수님은 진리이시다 (요 14:6B)
   1. Jesus’ life revealed the truth about the Father’s personality and how He relates to His people. Jesus described the truth about how He related to the Father *as a man* (14:7-11), and then He described the truth about His people relating to the Father in a similar way by the Spirit (14:12-27). One of Jesus’ main themes in John 14-17 is how the redeemed relate to the Father. We are called to participate in the family dynamics of the Trinity as described in 14:7-27 and applied in 15:1-12.   
      예수님의 삶은 아버지의 성품에 대한 진리를 보여주고, 그분이 자기 백성과 관계 맺는 방식에 대한 진리를 보여주었다. 예수님은 자신이 **사람으로서** 아버지와 어떻게 관계하셨는지에 대한 진리를 설명하셨고(14:7-11), 그와 비슷한 방식으로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아버지와 관계하는 지에 대한 진리를 설명하셨다(14:12-27). 요한복음 14-17장의 주된 주제 중 하나는 구원받은 자들이 아버지와 어떻게 관계하는지에 대한 것이다. 우리는 삼위일체의 가족 역동성에 동참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14장 7-27절은 이 역동성에 대해 설명하고, 15장 1-12절은 이것을 적용한다.

6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Jn. 14:6)   
6…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 14:6)

* 1. He knows the truth about God, human beings, angels, demons, the future and past of every person, city, nation. He knows the full truth about you, both negative and positive (1 Cor. 4:2).  
     예수님은 하나님, 인간, 천사, 마귀, 그리고 모든 사람, 도시, 국가의 미래와 과거에 대한 진리를 아신다. 그분은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우리에 대한 모든 진실을 아신다(고전 4:2).
  2. In the presence of Jesus, the truth is manifested because “He is the truth”—thus truth becomes openly manifest to all who come to the light of His presence.   
     예수님의 임재 안에서 진리가 나타나는데 이는 “그분이 진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리는 그분의 임재의 빛으로 나아오는 모든 이들에게 공개적으로 나타난다.

1. Jesus is the life (Jn. 14:6c)  
   예수님은 생명이시다 (요 14:6C)
   1. Jesus is the life that enables us to relate to the Father and to experience the supernatural realm.  
      Jesus alone is life, and He alone has the power to impart divine life (Jn. 1:4; 5:26; 11:25; 1 Jn. 5:20). Jesus elaborated on being the “life source” to our union with the Father in John 15:1-11.   
      예수님은 생명이시다. 그 생명으로 우리를 아버지와 관계 맺게 하시고, 우리가 초자연적인 영역을 경험하도록 하신다. 예수님만이 생명이시며, 그분만 신성한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능력을 있으시다(요 1:4; 5:26; 11:25; 요일 5:20).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11절에서 우리가 아버지와 연합하는 것이 “생명의 원천”임을 자세히 설명하셨다.

6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Jn. 14:6)   
6…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 14:6)

* 1. Jesus is our life—thus, the source of our greatest pleasure, anchor, power, reward, and more.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시다. 따라서 우리의 가장 큰 기쁨, 닻, 능력, 상급 등의 근원이시다.

4In Him was life, and the life was the light of men. 5And the light shines in the darkness, and the darkness did not comprehend it [overcome it; ESV, NIV]. (Jn. 1:4-5)   
4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5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기지 못하더라; ESV, NIV]. (요1:4-5)

* 1. In Jesus is found the fullness of our blessing forever and the total end of all our pain and trouble.   
     예수님 안에서 영원히 우리의 충만한 축복이 발견되고, 우리의 모든 고통과 고난은 완전히 끝난다.

4And God will wipe away every tear from their eyes; there shall be no more death, nor sorrow, nor crying. There shall be no more pain…5He who sat on the throne said, “Behold, I make all things new…6I will give of the fountain of the water of life freely to him who thirsts.”   
(Rev. 21:4-6)   
4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5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6…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계 21:4-6)

* + 1. The Lord has planned indescribably glorious things for His people (1 Cor. 2:9).  
       주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 말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일들을 계획하셨다 (고전 2:9).

9…Eye has not seen, nor ear heard, nor have entered into the heart of man   
the things which God has prepared for those who love Him. (1 Cor. 2:9)  
9 …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고전 2:9)

* + 1. God has planned blessings for His people from the foundation of the world (Mt. 25:34).  
       하나님은 세상의 기초를 놓을 때부터 자기 백성을 위한 축복을 계획하셨다 (마 25:34).

34“Then the King [Jesus] will say…, ‘Come, you blessed of My Father, inherit the kingdom prepared for you from the foundation of the world…’” (Mt. 25:34)   
34그 때에 임금[예수님]이 …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아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마25:34)

* 1. ***Jesus can be our holy daydream***: Thoughts of Jesus and conversation with Him can be the place “we escape” in our mind (the sweet place we go to in our mind)—He can be our “great getaway!”   
     This is not a retreat from real life, but a retreat from fear, lust, and anxiety by living in His presence.   
     **예수님은 우리의 거룩한 백일몽이 되실 수 있다**: 예수님에 대한 생각과 그분과의 대화는 우리가 생각 가운데 “탈출구”(우리가 생각으로 찾아가는 달콤한 장소)가 된다. 예수님은 우리의 “정말 좋은 휴식처” 되신다! 이것은 실제 삶으로부터의 도피가 아니라, 그분의 임재 안에 삶으로써 두려움, 정욕, 불안에서의 도피다.
  2. In the midst of the fears, manipulating, posturing, positioning, and scheming in the human heart—there is a sweet escape from that into “the Spirit of life and peace” (Rom. 8:6). It is our inheritance to love Jesus with “all our mind.” Our mind is empowered when it is engaged with the Spirit.   
     인간의 마음 속에 두려움, 교묘한 조종, 자세, 위치, 계략이 있는 그 가운데 “생명과 평강의 영”으로 달콤한 탈출이 있는 것이다(롬 8:6). “마음을 다하여”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유업이다. 우리의 생각은 성령님과 연결될 때 힘을 얻는다.

5For those who live according to the flesh set their minds on the things of the flesh, but those who live according to the Spirit, the things of the Spirit. 6For to be carnally minded is death, but to be spiritually minded is life and peace. (Rom. 8:5-6)   
5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6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롬 8:5-6)

* 1. ***Summary***:Jesus is the ***way*** to the Father by His death; Jesus revealed the ***truth*** about the Father in how He relates to people by His life and ministry (14:7-27); He is the ***life*** source for this relationship and for His people (15:1-11). He addressed each point in sequence through John 14-16.   
     **요약:**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되셨다. 예수님은 자신의 삶과 사역을 통해 아버지가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에 관한 **진리**를 계시하셨다(14:7-27). 그분은 이 관계를 위한, 또 그분의 백성을 위한 **생명**의 근원이시다(15:1-11). 그분은 요한복음 14-16장을 통해 순서대로 각 요점을 말씀하셨다.
  2. Jesus does not direct people to insight so that they might discover eternal life— He **is** life.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통찰력을 주어 영생을 발견하게 하신 것이 아니다. 그분 자신이 생명이시다.

1.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Jesus (Jn. 14:6d)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 14:6D)
   1. Jesus is the only “way” to know God because He alone embodies and tells the “truth” about God and man and about what is needed to saved and reconciled to God (Acts 4:12; 1 Tim. 2:5). Jesus does not just have *some* truth about God. He *is* the truth.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진리”와 구원받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데 필요한 “진리”를 구현하셨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행 4:12; 딤전 2:5). 예수님은 단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진리를 갖고 계신 것이 아니다. 그분이 진리**이시다**.

6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Jn. 14:6)  
6…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 14:6)

* 1. To come to the Father “through” the Son means we believe in Jesus—what He said about who He is and what He would do on the cross for sinners as the only hope for forgiveness of sins.   
     아들을 “통해” 아버지께 나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의미한다. 즉,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시며 죄 사함을 위한 유일한 소망으로서,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하실 일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다.
  2. Many teach lies about there being various ways to God and salvation. In truth, we don’t deserve *any* pathway to God, much less one. In His great mercy, God provided a way through His Son.   
     The innocent One became guilty so that the guilty ones might become as innocent (2 Cor. 5:21).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구원에 이르는 다양한 길이 있다는 거짓말을 가르친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어떠한** 길도 가질 자격이 전혀 없다. 하나님께서는 크신 자비로 당신의 아들을 통해 길을 마련하셨다. 죄 없으신 분이 죄가 되셔서 죄 있는 자가 죄 없는 자 같이 되게 하신 것이다(고후5:21).

21For He made Him [Jesus] who knew no sin to be sin for us, that we might become   
the righteousness of God in Him. (2 Cor. 5:21)   
21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예수님]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고후 5:21)

* 1. It is only because of Jesus’ work on the cross that anyone can enter heaven (1:12; 3:16; 1 Jn 2:2). Jesus claimed to be the only way of salvation. This was a major teaching throughout His ministry.   
     누구든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때문이다(1:12, 3:16, 요일 2:2). 예수님은 스스로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하셨다. 이것이 그분의 사역 전반에 걸쳐 가장 주된 가르침이었다.

1. Jesus is lunatic, liar, OR LORD—CS Lewis’ argument   
   예수는 미치광이거나, 거짓말쟁이거나, 주님이다—CS 루이스의 주장
   1. Lewis popularized the argument against those who claim that they reject Jesus as God but admire Him as a good moral teacher. Lewis wrote, “I am trying to prevent anyone saying the really foolish thing that people often say about Him: ‘I’m ready to accept Jesus as a great moral teacher, but I don’t accept His claim to be God.’ A man who was merely a man and said the sort of things Jesus said would not be a great moral teacher. He would either be a lunatic or else he would be the Devil. You can shut Him up for a fool, you can spit at Him as a demon; or you can fall at His feet and call Him Lord but let us not come with any patronizing nonsense about His being a great teacher.”  
      CS 루이스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훌륭한 도덕적 스승으로서 존경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한 반론을 많은 이들에게 알렸다. 루이스는 이렇게 썼다. “나는 사람들이 그분에 대해 흔히 말하는 정말 어리석은 말을 하는 것을 막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나는 예수님을 위대한 도덕적 스승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만, 그가 하나님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말하는 사람은 훌륭한 도덕 선생이 될 수 없다. 그는 미치광이이거나 악마가 될 것이다. 당신은 그분을 어리석은 자라며 말 못하게 할 수도 있고, 그에게 악마를 대하듯 침 뱉을 수 있다. 그게 아니라면, 그분 발 앞에 엎드려 그분을 주님이라 부를 수는 있지만, 그분이 위대한 교사라 말하는 넌센스를 옹호하지는 말자.”
   2. He pointed out that Jesus claimed to be God. So, His claim is either true or false. If it is true, then He is God. If the claim is false, then either He said it knowing it was false, in which case He is a liar, or He said it not knowing it was false, in which case He was insane. We are left with only three logical options: He is either a lunatic, a liar, or God.   
      루이스는 예수님이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주장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따라서 예수님의 주장은 참이거나 거짓이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는 하나님이다. 만약 그 주장이 거짓이라면, 그는 그것이 거짓임 알면서도 말한 거짓말쟁이거나, 거짓임을 알지 못하고 말한 미치광이 중 하나가 된다. 우리에게는 세 가지 논리적 선택만 남았다. 그는 미치광이거나, 거짓말쟁이거나 하나님이다.
      1. A great moral teacher would not, by definition, lie, and certainly not tell a lie of such magnitude as to claim to be God when He wasn’t.   
         개념상 위대한 도덕적 스승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므로 그가 하나님이 아닐 때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그런 거짓말도 하지 않을 것이 확실하다.
      2. To say Jesus was a lunatic is also a stretch, since His teaching appears to be the quintessence of sanity—and a great moral teacher is, by definition, sane. So, if He was not a lunatic nor a liar, the only other logically possible conclusion is that He is God.  
         예수님이 미치광이였다고 하는 것도 무리있는데, 그의 가르침은 온전함의 전형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위대한 도덕적 스승은 정의상 제정신이다. 따라서 그분이 미치광이도 거짓말쟁이도 아니었다면, 논리적으로 가능한 유일한 결론은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뿐이다.
   3. Among the three logical possibilities, great human moral teacher is not one of them. Jesus being merely a great human moral teacher is not logically possible. It is possible to hold that Jesus was dishonest or insane. But for the vast majority of people, these are not acceptable options. Logic forces those who don’t believe He is God to reject the idea that He was a great moral teacher.  
      세 가지 논리적 가능성 중 위대한 인간인 도덕적 스승은 그 중 하나가 아니다. 예수가 단지 위대한 인간이며 도덕적 스승이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예수가 진실성이 결여됐다거나 미쳤다고 주장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이러한 옵션은 허용되지 않는다. 논리상으로,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분이 위대한 도덕적 스승이라는 개념은 버릴 수 밖에 없다.